

양귀비 · 대마 불법재배 뿌리 뽑는다

전주시보건소 · 전주지방검찰청, 개화기 · 수확기 맞아 내달 중순까지 특별 단속 집 주변 · 농가 비닐하우스 등 이용한 밀경작과 허가 없이 재배하는 행위 강력 단속

전주시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지난 5월 말부터 오는 7월 중순까지 검·경과 합동으로 불법 마약류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양귀비·대마 재배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집 주변과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해

몰래 경작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전주시 일대에서는 현재까지 총 7건(448주)의 양귀비 불법재배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50주 미만인 양귀비는 전주지방검찰청의 폐기 의뢰를 받아 '불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폐기 처분했으며, 201주를 재배한 A씨는 전주지방검찰청에

서 입건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양귀비 밀경작 사범 대부분은 관상목적으로 자신의 주택 내 화단이나 정원등에 재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보건소는 지속적으로 △마약성분 양귀비와 원예용 양귀비를 구별하는 방법 △마약류의 위생성 △마약류 사용 시 처벌 내용 등을 시

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양귀비·대마 밀경작 사범이 근절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장병호 시보건소장은 "양귀비 등을 밀경작 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할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불법재배 행위를 목격하거나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시 보건소 또는 검찰청(1301)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캠페인 열어

전주시와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주근로자건강센터,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8일 홈플러스 효자점에서 방문 고객과 거리를 지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직원과 고객이 함께 행복한 건강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판매직 감정노동 종사자 권익보호 캠페인'을 했다.

이번 캠페인은 감정노동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살, 우울증 등의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고 감정노동자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지난 4월 이마트 전주점에서는 두 번째로, 참여기관들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상담 활동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3월 전북 최초로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정했으며 이후 감정노동 실태 조사와 민관협력, 홍보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

김봉정 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서비스산업이 성장하면서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는 만큼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객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는 28일 현대해상 5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청년들과 사회적기업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사회적경제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

청년들의 열정, 사회적경제 성공 이끈다

전주시 청년 서포터즈 31명, 어제 발대식 성료 열정으로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 앞장설 것 다짐 경제기업 탐방 · SNS 포스팅 활동 · 행사 참여 등

전주시청 청년들이 기업의 이윤과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대사가 돼주기로 했다.

시는 28일 현대해상 5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청년들과 사회적기업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사회적경제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10개 팀 31명으로 구성된 청년서포

터즈는 이 자리에서 선서를 통해 패기와 열정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내달부터 10월까지 사회적경제 기업을 탐방하고 기업의 생산품과 공연 등을 체험한 후, 후기를 작성해 각자의 SNS에 포스팅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관련 행정기관의 사회적기업 육성과정을 견학

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역량 있는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원봉사시간이 인정되고, 수료증 발급, 활동실비, SNS 포스팅 수당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또, 우수 활동팀은 성과 발표 및 시상식을 통해 상금 등 활동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청년 서포터즈들의 활동을 통해 도시민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은 물론, 청년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안보태세 확립위해 통합방위협의회의 열어

전주시가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등 새로운 안보환경에서도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로 했다.

시는 28일 시청4층 회의실에서 김

승수 전주시장과 군부대, 경찰, 소방서, 교육계, 병무청, 교도소 관계자 등 통합방위 관련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2분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를 개최했다.

의장인 김승수 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등 새로운 안보환경에서도 지역안보 태세를 꼼꼼히 점검하고,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남종희 시 시민안전담당관은 "국내

외적으로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많은 지금 통합방위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예상치 못한 각종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합방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지금처럼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주시, 올 상반기 정년퇴임식 성료

전주시는 28일 시청 강당에서 2018년 상반기 정년 퇴임식을 개최, 영광스런 정년을 맞이한 퇴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정년퇴임식에서는 후배 공무원들이 준비한 축하동영상에 이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공로패가 수여됐다.

또, 오랫동안 공직의 길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배우자들에게도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퇴임식에서는 올해 처음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합창공연도 마련, 퇴임을 맞은 선배들의 앞날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기도 했다.

퇴직자들을 대표한 박숙자 전(前) 유아2동장은 "30년 이상 몸

담았던 공직을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이번 퇴직자 모두는 비록 뚝은 떠나지만 후배 공무원들 모두가 위대한 꽃심의 도시 전주의 강한 힘이 돼 66만 전주시민에게 뜨겁게 사랑받는 전주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송별사를 통해 "정년까지 공직생활을 훌륭하게 마친 퇴직 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와 오늘 이 자리까지 옆에서 든든히 힘을 불어넣어주신 가족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며 "퇴직 이후에도 전주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축하했다.

한편, 이번 퇴임하는 공무원은 박선이 전 덕진구청장과 안석 전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총 30명이다. /송효철 기자

'여름휴가 이용해 국가암검진 받으세요'

전주시보건소, 조기수검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 나서 위암 · 간암 · 유방암 등 조기암 발견과 의료비지원 혜택

전주시가 국가 암 검진 대상자가 조기 검진을 통해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다.

전주시보건소는 암검진 대상자의 연말예약집중으로 인한 과부하와 부실검진 최소화화를 위해 여름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미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국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암과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은 비교적 간단하게 조기발견이 가능하며 조기치료할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주시보건소는, 평소 직장생활 등 바쁜일과로 검진을 받을 여유가 없는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하계휴가 기간을 이용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거리 홍보 및 캠페인 △전화안내 △문자메시지 및 우편 발송 △전주다움 및 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홍보, 연말에 검진이 불려 겪게 되는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올해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건강보험료

하위 50%)이며 △위암, 간암,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홀수년도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이 해당된다.

또한,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 받은 환자 중 진단년도 기준 2년 이내 국가 암검진 수검기록이 있고,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 96,000원, 직장 91,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연간 최대 200만원의 의료비가 최대 3년 간 지원되며 의료수급권자의 경우는 연간 최대 22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대해 장병호 보건소장은 "각종 건강검진은 지정 검진기관에서 12월 말까지 가능하며, 연말은 검진이 집중되는 만큼 평일 또는 휴가철을 이용하면 좀 더 편안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암검진을 통해야 하는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하는 주기와 절차에 따라 검진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